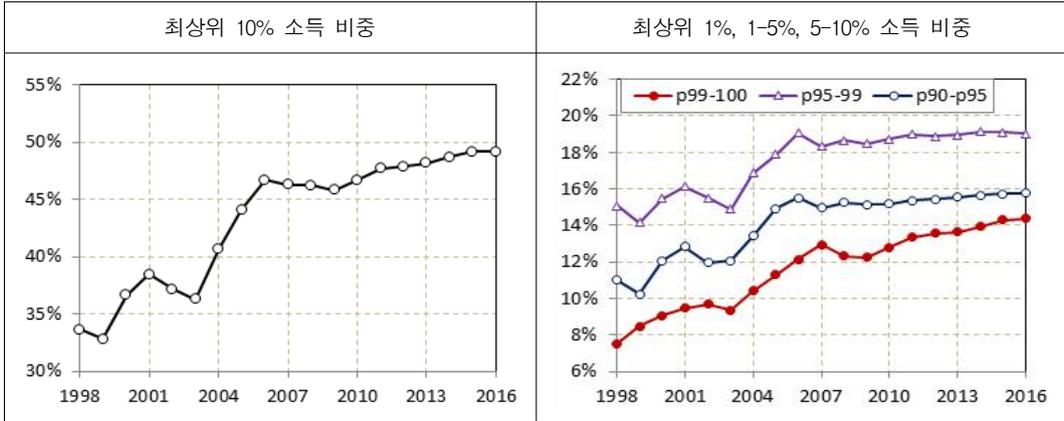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 지표

- 2016년까지 최상위 소득 비중과 지니계수의 추세를 살펴봄.
 - 최상위 소득 비중은 개인 소득의 집중도를 계산한 것이고, 지니계수는 균등화된 가구 소득의 불평등도를 계산한 것임.
- 최상위 소득 비중의 계산법
 - 자료는 『국세통계연보』
 - 소득은 노동소득(임금, 보너스, 스톡옵션), 사업소득, 금융소득(배당, 이자)을 합한 것.
 - 20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 전체소득은 국민계정 개인부분 순분원소득의 80%¹⁾
- 2016년 최상위 1%, 5%, 10% 소득 경계값은 각각 1억 2,971만 원, 7,276만 원, 5,047만 원
- 최상위 집단의 소득 비중 추세(그림 1, 표 1 참조)
 - 2015년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49.2%. 2009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
 - 최상위 1% 집단의 소득 비중은 2009년 12.2%에서 2016년 14.4%로 조금씩 증가함. 최상위 1%를 제외한 1~10% 집단의 소득비중은 2000년대 후반 이후 변화가 없음.
 - 2010년 이후 최상위 1% 집단의 소득 비중 증가가 상위 10% 소득 비중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1) 순분원소득의 하부 항목인 '피용자보수'는 '임금과급여'와 '고용주사회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국민계정의 '임금과급여'와 국세통계의 근로소득은 포괄 범위가 달라서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소득(2016년 약 13.7조)은 국세통계에 포함된 반면, 국민계정 '임금과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당, 교육비 지원금, 질병·사고·출산시 지급하는 금액 등은 '임금과급여'가 아니라 '고용주사회부담금'에 속한다. 순분원소득에 포함된 근로소득은 '피용자보수'여서 국세통계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포괄 범위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보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문제가 확인되어 새 추계값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계정의 소득값을 사용한다. 소득비중 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국민계정 소득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1] 최상위 10% 집단과 집단 내 소득 비중



<표 1> 최상위 소득 비중과 소득경계값

	20세 이상 인구 (천 명)	총소득 (억 원)	소득비중(%)				소득경계값(백만 원)		
			p99-100	p95-99	p90-95	p90-100	상위 1%	상위 5%	상위 10%
2001	33,102	345,386	9.46	16.15	12.85	38.46	61.07	33.30	19.61
2002	33,556	370,107	9.68	15.50	11.96	37.14	63.42	33.49	19.56
2003	34,016	398,980	9.35	14.90	12.05	36.30	55.62	34.55	19.93
2004	34,482	425,799	10.42	16.85	13.43	40.71	71.19	38.75	27.64
2005	34,955	449,422	11.30	17.91	14.92	44.13	79.18	44.71	26.62
2006	35,310	476,103	12.16	19.06	15.50	46.72	91.18	48.91	36.64
2007	35,668	503,289	12.95	18.34	14.98	46.26	90.38	51.42	34.73
2008	36,030	525,296	12.33	18.66	15.24	46.23	95.10	53.94	36.62
2009	36,396	541,509	12.23	18.46	15.13	45.82	96.23	54.52	37.04
2010	36,765	578,751	12.78	18.73	15.16	46.67	100.54	57.47	39.51
2011	37,419	613,421	13.35	19.00	15.36	47.71	107.61	60.50	41.94
2012	38,084	640,330	13.56	18.87	15.44	47.86	104.15	61.46	45.08
2013	38,761	670,158	13.66	18.97	15.55	48.17	110.75	63.19	46.48
2014	39,450	700,770	13.94	19.12	15.64	48.69	117.30	66.15	47.70
2015	40,152	739,488	14.31	19.11	15.72	49.14	124.20	69.34	49.19
2016	40,591	771,340	14.38	19.03	15.77	49.19	129.71	72.76	50.47

○ 국제비교

- 2014년 최상위 10% 소득비중은 미국 48.3%,²⁾ 일본 42%, 영국 40.0%, 프랑스 32.6%, 스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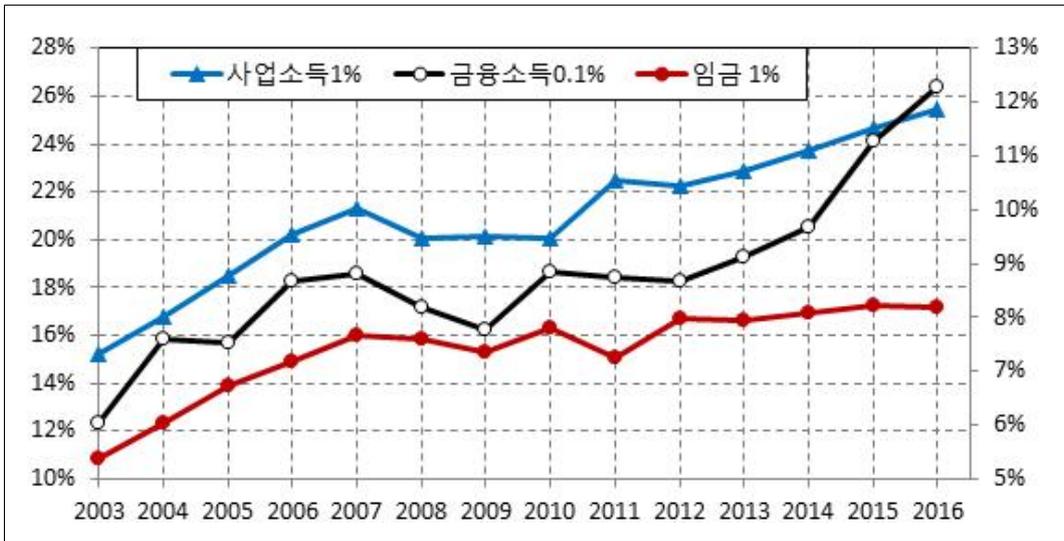
2) 총인구기준을 과세 가구단위에서 20세 이상 인구로 바꾸면서 미국의 소득 집중도가 기준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 덴 30.6%로, 한국의 소득 집중도(48.7%)가 매우 높은 수준임.
- 2010년대 최상위 1% 소득비중은 미국 21.2%, 영국 12.8%, 일본 10.5%, 프랑스 8.6%, 스웨덴 8.8%로, 한국이 영미권보다는 낮고 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임.
-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아서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높음. 최근 들어 최상위 1% 소득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각 소득 항목의 집중도 변화(그림 2 참조)

- 임금 최상위 1% 집단이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8%에서 2016년 8.2%로 정체 상태
- 사업소득 최상위 1% 집단이 총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0%에서 25.4%로 상승함. 금융소득 0.1% 집단이 총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8.6%에서 26.4%로 크게 상승함. 금융소득의 소득집중도가 최근 크게 상승함.
- 2010년대 이전까지는 임금 불평등이 최상위 1% 소득 비중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2010년대 이후로는 금융소득(특히, 배당)과 사업소득 집중도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

[그림 2] 사업소득 1%(왼쪽 축), 금융소득 0.1%(왼쪽 축), 임금 1%(오른쪽 축)의 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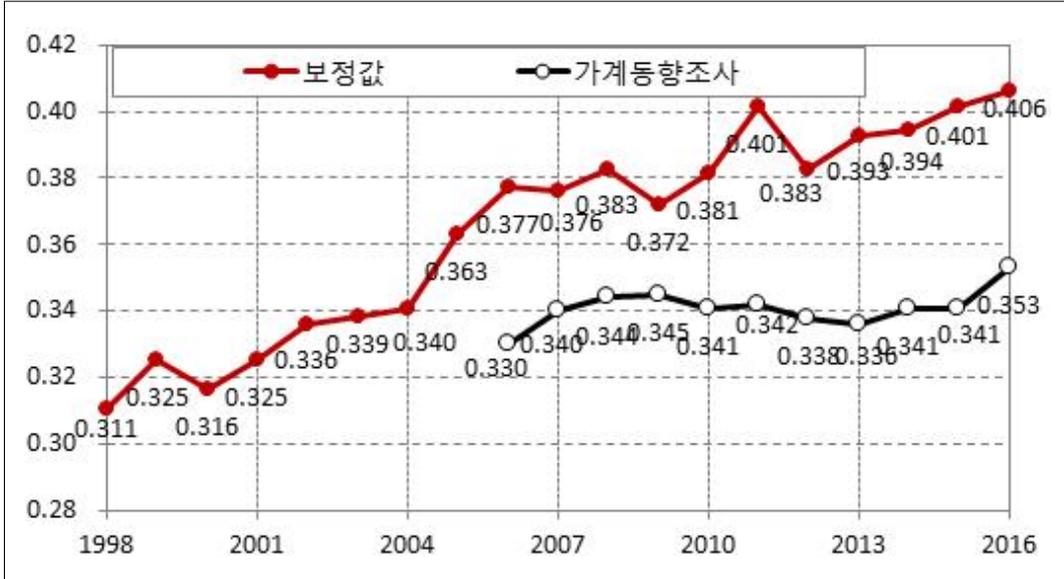


○ 보정 시장소득 지니계수(그림 3 참조)

- 보정 방법 : 국세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가계동향조사의 가중치를 조정하고 고소득 가구 표본을 추가함(홍민기(2017), 「보정지니계수」, 『경제발전연구』).
- 보정 지니계수는 2016년 0.406.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는 0.353.

- 보정 지니계수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임. 반면,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음.
- 참고로, 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5년 0.396, 2016년 0.402임. 보정 지니계수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임.

[그림 3] 지니계수



○ 계산방법,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ites.google.com/site/hminki00/>을 참고 **KLI**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